



“7년 첫사랑 감정 담았죠”

JTBC ‘미스티’ 투박한 섹시함으로 여심 사로잡은 고준



JTBC ‘미스티’의 한 장면 ▶

최근 온라인 여성 커뮤니티에서 케빈리(사진)를 모르면 ‘간첩’이다.

JTBC 금토극 ‘미스티’에서 해란(김남주 분)에게 버림받은 옛사랑이자 프로퍼플 케빈리를 연기하는 배우 고준(40)은 특유의 투박한 섹시함으로 여심을 사로잡았다.

최근 서울 광화문에서 만난 그는 “섹시하다는 평가나 인기를 아직 실감하지 못한다”며 “저는 제 인기를 볼 때마다 손발이 오그라든다”고 했다.

“제 역할을 모른 채 대본을 봤는데 정말 폭 빠졌어요. 그런데 PD님이 케빈리 역을 제안하시는 거예요. 고사하려고 했죠. 아무리 봐도 잘생긴 사람이 해야 할 것 같은 역인데, 전 영능 후계자처럼 생겼잖아요. (웃음) 그런데 PD님이 전형적인 미남보다는 미국계 아시안 같은 느낌이 필요하셨어요. 그 애길 듣고 거울을 봤는데 좀 자신감이 생겼어요. 맛글에 추성훈 씨 닮았다는 의견이 많던데, 추성훈 씨 맞았다고 섹시하잖아요!”

그는 그러면서 “섹시함을 일부러 부각하려 하진 않았다. 철저히 연출된 부분”이라며 “처음부터 섹시함을 드러내는 방법을 알고 연기했다면 오히려 매력적으로 보이지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10여 년간 무에타이, 유도, 복싱, 레슬링 등 운동으로 다져진 그의 다부진 몸이 프로퍼플인 케빈리의 섹시함을 자연스럽게 표현했다.

그는 “골프 마니아이지만 프로퍼플의 골과는 비할 바가 못 된다”며 “게다가 케빈리의 심한 ‘왕자병’을 연기하는 게 참 힘들었다. 실제로 전 전혀 반대의 성격이라 여자 앞에서 얼어버린다”고 설명했다.

고준은 그러면서도 사랑에 있어서는 케빈리와 닮은 부분이 많다고 했다.

“어릴 때 7년간 첫사랑을 했어요. 자연스럽게 만나고 헤어지는 걸 습득하지 못해서 사랑에 투박해요. 이번 연기에 그 경험을 녹여냈어요. 케빈리도 사랑에 굶주려서, 가진 게 없을 때 버림받아서 해란한테 지질하게 집착하는 거라 생각했죠. 저 역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 때 만났던 사람에게 미안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케빈리는 처음부터 ‘죽고’ 시작했다. 극 자체가 누가 케빈리를 죽였는지 범인을 찾는 플래시백 형태다.

고준은 “저도 아직 범인을 몰라 궁금하다”며 “제 생각엔 은주(전혜진)가 죽인 게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전혀 알 수 없다”고 웃었다. 바라는 결말에 대해

서는 “개인적으로는 파국일지 천국일지 모르는 열린 구조였으면 좋겠다”고 했다.

오랜 기간 연극 무대와 독립영화 시절을 거쳐 2001년 영화 ‘와니와 준하’로 데뷔, 2014년 영화 ‘타짜-신의 손’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그는 최근 드라마에도 자주 얼굴을 비치고 있다.

“처음엔 신부님이 되는 게 꿈이었는데 고3 때 뮤지컬 한 편을 보고 배우의 독백에 반해 연기에 뛰어들었어요. 연기는 매번 쉽지 않죠. 타인의 삶을 먼저 없이 연기한다는 데 책임감이 따르니까요. 그래도 사람들의 정서를 대변해줄 수 있는 게 배우잖아요.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해줄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상업 영화에선 약역만 했는데, ‘미스티’가 스펙트럼을 넓힐 기회가 된 것 같아 기쁩니다.”

연합뉴스

‘조민기 성추행’ 신인배우 폭로 일파만파

“오피스텔 등 서 신체 접촉”

청주대학교 연극학과 졸업한 신인 배우가 조민기의 성추행에 대한 상세한 증언을 SNS에 올려 진실공방이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자신을 청주대 연극학과 졸업생으로 밝힌 신인배우 송하늘은 21일 페이스북에 “조민기 교수가 내놓은 공식입장을 듣고 분노를 도저히 견딜 수 없다”며 “저와 제 친구들, 선배배들이 당한 일은 명백한 성추행”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민기는 교내 성추행 문제로 사표를 제출, 수리했다는 보도에 “성추행은 명백한 루머고 사표를 낸 것은 강연 내용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송하늘은 이에 대해 “학과 내에서 조민기 교수의 성추행은 공공연한 사실이었다”며 “그는 절대적인 권력이었기에 누구도 항의하지 못했다. 그는 캠퍼스의 왕이었다”고 했다.

송하늘은 “조민기는 오피스텔로 여학생들을 불렀다. 가지 않으면 올 때까지 전화를 했다고”며 “저와 제 친구에게도 자고 가라고 했고, 씻고 나오라며 옷과 칫솔까지 꺼내줬다. 문을 열고 나가니 억지로 침대에 눕게 했고, 배 위에 올라타 얼굴에 로션을 발랐다. 팔을 쓰다듬거나 옆구리에 손을 걸치기도 했다”고 구체적인 증언도



덧붙였다.

또 “팀 회식 등에서 여학생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행위는 너무 많아 적을 수도 없다”며 “2014년에는 노래방에서 조민기 교수가 술에 취해 여학생들의 가슴을 만지고, 다리를 갑자기 번쩍 들어 올려 속옷이 보이게 한 뒤 후배위 자세를 취한 채 다리를 타기도 했다. 제게는 보복했다”고 증언했다.

전날 청주대는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민기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본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민기는 전면 부인했지만 피해 학생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학교 측도 “전수조사를 벌여 사실 확인을 했다”고 함에 따라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한편 경찰이 배우 조민기의 성추행 의혹 진실을 밝히기 위한 내사에 착수한 가운데 조민기(52) 측은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연이 예정된 드라마에서도 하차했다. /연합뉴스

SBS ‘키스 먼저 할까요?’ 시청률 8% 순조

‘리얼 어른 멜로’를 표방한 SBS TV 새 월화극 ‘키스 먼저 할까요?’(사진)가 8.1%로 출발했다.

21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 2회(프리미엄CM으로 나뉘는 회차 포함 4회) 연속 방송한 ‘키스 먼저 할까요?’의 시청률은 전국 8.1%~10.5%, 9.9%~9.1%로 집계됐다.

첫 방송에서는 손무한(김우성 분)과 안순진(김선아)의 6년 전 인연과 맞선 자리에서의 코믹한 만남이 그려졌다.

김선아와 김우성뿐만 아니라 오지호, 박시연, 김성수, 예지원 등 중년으로 접어든 배우들이 주축으로 나서 눈길을 끈 ‘키스 먼저 할까요?’는 첫 방송 후 신선하다는 시청자 반응과 다소 억지스럽다는 평이 엇갈렸다.



‘어른 멜로’를 표방한 만큼 시연시원한 대사들과 코믹한 장면들이 눈길을 끌었지만 몇몇 설정은 작위적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첫회부터 쏟아진 자극적인 대사들에 ‘19세 이상 시청가’로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한편, 같은 시간 마찬가지로 2회 연속 방송한 KBS 2TV 월화극 ‘라디오 로맨스’는 3.9%, 3.4%의 시청률을 보였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창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평창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역류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뉴스타임	30 살맛나는 세상	25 닥터 365 30 해피 시스터즈
9	30 KBS 뉴스	00 파도야 파도야 40 여기는 평창	30 930 MBC 뉴스 45 2018 평창동계올림픽	10 평창 2018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	00 생로병사의 비밀 50 UHD 한식의 마음			10 SBS 뉴스 20 평창 2018
12	00 KBS 뉴스 12 40 사랑의 가족			
1	30 평창올림픽 라이브			30 평창 2018
2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 스페셜		
3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00 똑? 똑! 키즈스쿨 30 에어로빅	40 SBS 뉴스 50 닥터 365 55 생명령사, 지구로의 여정
4		00 누가 누가 잘하나	00 응까 스타 2 30 드림 유니버 베스트	55 지식 통조림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닥터 하우스	00 5MBC 뉴스 15 생방송 오늘 저녁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여기는 평창	20 2018 평창동계올림픽	00 평창 2018
7	00 KBS 뉴스 7 35 한국인의 밥상			
8	25 미워도 사랑해		35 MBC 뉴스데스크	
9	00 KBS 뉴스 9 40 KBS 스페셜	50 추리의 여왕 시즌1 물아보기 특별판	35 발칙한 동거 반방 있음	30 SBS 8 뉴스 55 KBC 8 뉴스
10	35 슈퍼 40 KBS 뉴스라인		55 나 혼자 산다 1~2부	10 리턴
11	10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하이라이트	00 해피투게더		20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1~2부
12	40 인간극장 스페셜	30 세상의 모든 다큐(재)	35 평창동계올림픽 하이라이트 평창, 우리의 밤	40 평창 투니잇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통일의 길 (2016 북한 패선)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대마기행(재) 07:00 레인보우 루비 07:30 띠띠뽀 띠띠뽀(재) 07:45 뽀롱뽀롱 뽀로로 08:00 덩동덩 유치원 1~2 08:30 공룡탐험대 고고다이노(재) 08:45 수확이 야호 09:00 똑딱맨 09:15 두다다쿵 09:30 플랑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에콜피아의 애플 시나몬라떼) 11:20 세계대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장수의 비밀 (분이 할머니의 101번째 봄) 12:40 지식채널e 12:45 명의(재) 13:40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 (환타 VS 브라이언) 14:30 레인보우 루비 15:00 로봇 발명왕 러스티
15:30 호기심 나라 오기도 15:45 레전드더어러 삼국지 16:15 주사위 오징어 큐비주 16:30 수확이 야호(재) 16:45 덩동덩 유치원 1~2(재) 17:15 올감한 소꿉친구 레이 17:30 똑딱맨 17:45 뽀롱뽀롱 뽀로로 18:00 생방송 토크쇼 보니하니1~4 19:00 사이언스타 Q (장충우를 제작기) 19:30 EBS 뉴스 19:50 특집다큐 위기청소년 자아찾기 프로젝트	20:40 다큐 오늘 20:50 세계대마기행 (타이완, 그 섬에 닿으면 4부 천년의 전통을 잇는 사람들) 21:30 한국기행 (시선기행-포구에서 4부 다섯 살, 소년의 바다) 21:50 과학 다큐 비온드 (우리가 향하는 곳) 22:45 다문화 고부열전 23:35 호모 이코노미쿠스 (재2)의 인생, 노병은 죽지 않는다) 24:05 지식채널e 24:10 EBS 스페이스 공감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22일(음 1월 7일 乙酉)
子	48년생 풍요로움을 만끽할 수 있다. 60년생 근처에 있는 사람이 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72년생 실수한다면 주변인에게까지 피해가 가리라. 84년생 힘들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여서는 아니 되느니라. 행운의 숫자 : 05, 74	42년생 양호한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임이다. 54년생 핵심탄회하게 얘기하다보면 오해가 풀릴 수 있다. 66년생 인정세를 취하면서 견고해지겠다. 78년생 변화의 폭 크다. 90년생 침착하게 들어 보면 놀랄 일도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2, 32
丑	49년생 결과는 의외로 빨리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61년생 성취의 문이 열릴 것이다. 73년생 당래지사에 영향을 미칠만한 재만 요소들이 연쇄적으로 나타난다. 85년생 간헐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무서워할만한 상황도 아니다. 행운의 숫자 : 60, 65	43년생 상서로운 기운이 비취고 있다. 55년생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겠다. 67년생 기존의 상황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가 보인다. 79년생 지켜보고 있으려면 답이 나오리라. 91년생 진행해도 지장이 없었다. 행운의 숫자 : 77, 98
寅	50년생 거만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최선임을 분명히 알라. 62년생 털어놓고 상의해 본다면 해결점을 도출할 수 있다. 74년생 일시적인 과욕으로 인해 기존의 성과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자. 86년생 향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행운의 숫자 : 58, 93	44년생 성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행복해지겠다. 56년생 상당한 재산이 들어오거나 영광스러운 일이 보인다. 68년생 내버려 둔다면 마무리가 시원치 않게 끝날 수도 있다. 80년생 성사시키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행운의 숫자 : 04, 25
卯	51년생 대세에 합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63년생 겉모습만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으니 세밀하게 캐보아야 한다. 75년생 무작정 버티기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87년생 인재로 인한 피해자가 될 수도 있음을 알라. 행운의 숫자 : 79, 78	45년생 오랫동안 고민해 왔던 난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될 것이니라. 57년생 대중 넘길 일이 아님을 분명히 알라. 69년생 핵심을 파악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 81년생 교체에 주어야만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53, 91
辰	52년생 내부적인 단속과 확실한 절차가 절실한 때이니라. 64년생 일신이 안락하니 세상일이 태평하다. 76년생 복잡다단함을 잘 정리할 수만 있다면 형세를 좌우할만한 대국을 이룰 것이다. 88년생 단속적인 상황이 나타날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62, 10	46년생 가까운 이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보인다. 58년생 약간 신경 쓰면 쉽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70년생 문제점이 보이거든 확실해 해결해야 후환을 없앤다. 82년생 재만사기 서서히 풀려 나갈 것이니 마음 편하게 가져도 된다. 행운의 숫자 : 90, 67
巳	53년생 자발적인 자제가 상승효과를 보일 것이다. 65년생 대중 어림잡아서 처리해도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77년생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해나가자. 89년생 부담스러우려도 조건 없이 수용하는 것이 무방하다. 행운의 숫자 : 99, 31	47년생 집착할수록 역효과가 날 수도 있으니 마음을 비우고 임하는 것이 현명하다. 59년생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겠다. 71년생 협조자를 지칭하는 이가 나타나니 판국이요. 83년생 돌발 상황이 발생한다. 행운의 숫자 : 12, 19